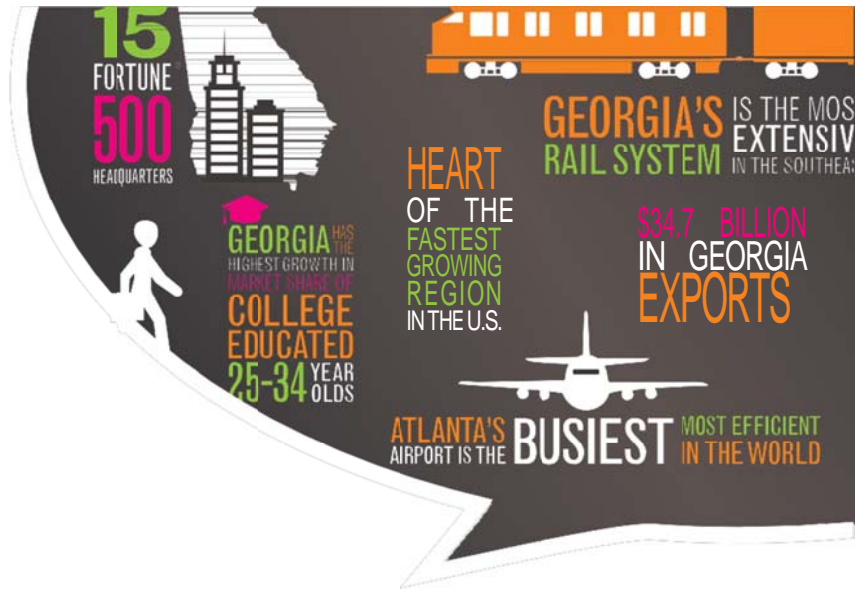




GEORGIA STATE PROFILE



주도: 애틀랜타 | 인구(2011): 9,820,000 명 | GDP (2011): \$4,180 억
1인당 실제 GDP (2011): \$37,270 | 법인세율 (2011): 6%

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조지아주에는 3,500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총 72 개국에서 영사관, 무역사무소 및 상공회의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와 더불어 조지아주 경제개발부는 아시아, 유럽, 중동, 미주 지역 등을 통틀어 12 개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조지아주에는 코카콜라, 홈 디포(The Home Depot), UPS (United Parcel Service), 델타항공사, AFLAC, Southern Company, 선트러스트 은행, NCR, 뉴웰 러버메이드(Newell Rubbermaid)를 포함한 15 개의 Fortune 500 대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.

조지아주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특히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합니다. 조지아주에 위치한 기업들은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 75 개국 및 미국 내 150 개 도시로 매일 떠날 수 있습니다. 또한 미국 시장의 80%가 넘는 지역이 조지아주로부터 비행기로는 2 시간, 육로를 통해서서는 이들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.

조지아주는 사바나항과 브런스윅항 두 개의 심해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대형 원양화물선사와 100 개 이상의 트럭 운송 회사가 이들 항구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사바나항은 미국 전체에서 4 번째로 큰 항구로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컨테이너 수출항으로는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는 등 조지아주가 현재 미국 내 수출 실적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. 또한 조지아주는 5,000 마일 길이에 해당하는 철도를 보유, 미국 동남부에서 가장 큰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

이와 더불어 조지아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두 개의 통신망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최적의 온라인 연결성을 제공해 줍니다.

조지아주의 '퀵 스타트 프로그램'은 미국 내 최고의 인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조지아주는 맞춤형 교육을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기아자동차, IKEA 등 유수의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. 최근 조지아주 진출을 공표한 Baxter International의 예를 들자면,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테크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며 맞춤형 인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조지아주에서는 90 개에 달하는 대학교, 일반 전문대학, 공과 전문대학 등으로부터 연간 5만 명 이상의 인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. 조지아공대 및 에모리대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생물의공학, 공급망물류관리, 정량분석 등의 영역이 포함되며 이들 모두 미국 전역에서 널리 인증을 받았습니다. 조지아주립대학의 위험관리와 보험 프로그램은 U.S. News & World Report 선정 최고분야로 인정 받았습니다.

